

② 國內景氣 緩慢한 回復에 總量經濟安定

盧 成 泰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經博〉

I. 85年 國內經濟의 회고

今年中 經濟成長이 年初의 豫想과는 달리 4.5~5%의 低調한 實績을 보이게 된 原因은 主로 輸出과 投資의 不振에 있다고 하겠다.

우선 83년에 11.9%, 84년에 19.6%가 增加했던 輸出이 今年에 들어서는 10월까지 234億弗로 前年同期에 비해 1.4%나 減少한 水準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輸出의 不振은 무엇보다도 先進國 특히 美國經濟의 成長勢鈍化에 연유한다고 하겠으며 이에 더하여 年初까지 圓貨의 高評價, 우리 商品에 대해 강화되어 온 各국의 輸入規制, 우리 輸出産業이 가진 構造的 問題 등이 輸出增加를 制約하여 왔다.

投資 또한 今年 3/4 分期까지 3%밖에 增加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景氣展望의 不透明, 選舉, 國際「그룹」의 道산 등에 따른 투자분위기의 惡化로 設備投資 增加가 부진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투기 억제에 따라 住宅建設이 특히 저조하였기 때문이었다.

國內景氣가 급속하게 냉각됨에 따라 大企業의 減量經營을 위한 解雇, 中東근로자의 귀국 등으로 僱傭事情이 뚜렷하게 惡化되었다. 제조業의 경우 勞動部의 每月 勞動統計에 의하면 今年 上半期中 平均 취업자수가 前年同期에 비해 約 3~4% 감소하기까지 한 바 있다.

政府는 成長勢鈍化에 대처하고자 各 機關 몇 차례

에 걸쳐 환율인상, 수출지원금융 확대, 여신 관리 완화 등 수출 및 투자촉진책을 강구한 바 있으나 아직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今年度 巨視經濟의 運用實績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成長과 僱傭面에서는 年初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반면(成長 7.5%) 國際收支와 物價面에서는 當初 目標에 접근하는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0月 末까지의 經常收支 赤字규모는 9.2億弗이지만 남은 2個月 동안 約 2億의 黑字가 예상되므로 今年 目標值上限인 7億弗 以內로 赤字規模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前年의 13.7億弗 赤字보다 크게 改善된 水準인 것이다. 다만 경상수지의 개선이 輸出의 增大에 의한 것이 아니라 輸入減少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흠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물가 쪽은 各 機關의 금융완화, 환율인상에도 불구하고 國內경기의 위축, 금융저축 증대, 해외원자재 가격약세 등의 요인으로 도매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각각 今年 目標值인 1~2%, 3%를 넘지 않을 展望이다.

II. 86年度 展望

86年度 經濟展望의 관건은 輸出과 投資에 있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의 輸出增大에 큰 장벽이 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주의 분위기가 내년의

중간선거를 전후하여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내년도 輸出展望을 어렵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下半年以後 美國景氣가 호전되고 있는 데에다 그간 수출지원체제가 강화되어 왔으며 달러貨의 價値下落과 圓貨의 實勢化로 餘他地域에 대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提高되었다는 점들로 미루어 보아 輸出은 점차 금년의 不振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上半期中 5.1% 增加에 그쳤던 民間設備投資는 그간의 투자촉진책의 효과가 본격화하고 輸出 및 景氣가 점차 예상대로 확대된다면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서서히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이 住宅建設의 부진으로 당분간 저조한 모습을 보일 것인데 반해 정부부문은 내년도 세출예산 증가를 기반으로 금년에 이어 86년에도 계속 호조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來年中의 總固定投資 增加는 約 8~8.5% 水準이 될 展望이다.

消費는 政府消費가 追更豫算 및 경기 부양을 겨냥한 來年度 豫算上的 세출증대에 힘입어 내년에도 금년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며 민간소비도 경기회복에 따라 늘어나겠으나 그간의 경기위축, 高金利 新種金融商品의 도입, 외채감축을 위한 소비절약운동 추진 등의 要因 때문에 그 증가속도가 비교적 완만한 것이다.

이와 같은 需要部門別 展望을 기초로 할 때 내년의 實質GNP는今年보다 1.5~2.0% 「포인트」가 높은 6.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수지 전망을 보면 먼저 今年中 減

85年 經濟運用計劃 및 實績(3/4分期까지)

<表-1>

	84	85	
		計劃 ¹⁾	實績 ²⁾
經濟成長率(%)	7.5	7.5	4.0
經常收支(億弗)	-13.6	-5~ -7	-9.1
輸出(億弗)	263	305	212
輸入(億弗)	274	308	215
都賣物價(%)	0.7	1~2	0.7
消費者物價(%)	2.3	2~3	2.8

註: 1) 當初 運用計劃上的 展望值임.

2) 經濟成長率은 9月까지, 나머지는 10月까지.

少를 보였던 輸入需要가 수출 및 경기의 회복에 따라 名目으로 9.8%가 늘어난 297億弗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輸出(國際收支基準)은 이보다 1億불이 많은 298億弗로 예상되어 무역외수지까지 고려한 경상수지 적자는今年보다 더욱 개선된 3億弗 규모로 축소될 것이므로 사실상 국제수지는 균형단계에 도달하게 될다고 볼 수 있겠다.

86年 物價는 그간의 通貨緊縮 완화, 政府支出의 增大, 換率引上 등의 효과가 점차 현재화할 것이므로 금년보다 약간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또한 86년부터는 일부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악화된 고용사정, 완만한 수출회복속도 등의 사정 때문에 긴축강화나 환율강세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물가압력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인플레이」 재연을 불러오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經濟政策運用

85年中 國內經濟活動이 低調한 實績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經濟政策運用은 지금까지 추구해 온 物價安定 및 國際收支 改善이라는 기본 목

86年度 國內經濟展望

<表-2>

	1984	1985 ²⁾	1986 ²⁾
實質GNP成長(%)	7.5	5.0	6.5
總消費	5.3	4.3	4.8
固定投資	5.6	4.5	8.3
商品輸出	9.9	4.2	7.2
商品輸入	8.4	2.0	6.1
經常收支(億弗)	-13.7	-6.8	-3.0
貿易收支	-10.4	-1.4	1.0
(輸出)	263.3	269.0	298.0
(輸入)	273.7	270.4	297.0
貿易外移轉	-3.4	-5.4	-4.0
物價上昇率(%) ¹⁾			
都賣物價	0.7	1.1	2.5
消費者物價	2.3	3.0	4.1
GNP「디플레이터」	4.0	3.5	4.3

註: 1) 期中平均, 前年同期比 上昇率. 2) 展望值임.

